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제14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현섭 대회 제전위원장.

## ‘어려움 속 용기와 희망을 노래하다’

제14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이 행사는 전국의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참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심어주고 생활에 명랑하고 자신감있게 살아가는데 이바지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이남숙·박병술 전주시의원, 양현섭 꿈드래장애인지원센터,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김동주 새빛장애인자립센터 대표, 이영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장, 이수정 본 단체인사 등 임원들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기량을 맘껏 펼친 이번 가요제에서 송용섭(전주)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유윤기(충남 홍성)씨가 금상, 김영욱(정읍)·노남식(전주)씨가 은상, 윤석주(전주)·김태철(완주)씨가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배차영(광주)·유영식(전주)·이재웅(전주)씨가 장려상, 임남국(전주)·이미화(진안)씨가 인기상, 손길천(전주)·고금자(군산)씨가 노력상, 고쌍동(전주)씨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가요제 참가자 모두에게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다.

대회 본부장인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재능의 참여확대를 위해 매년 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여파 속 답답하고 어렵지만 용기와 꿈을 갖고 살아가며 밝게 웃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진행됐다.

/김진성기자



축사를 하고 있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감사패를 수상받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금상 수상자인 유윤기씨가 열창하고 있는 모습.



참가자들 중에 하나인 송용섭씨가 열창을 하고 있다.



공로패를 수상받는 가수 이수정씨(사진 오른쪽).



대상을 수상받아 기뻐하고 있는 송용섭씨(왼쪽에서 세번째).